

나주에 풀릴 5,000억 뭉치돈 잡아라

5월말로 예정된 나주 혁신도시 토지 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은행과 증권 등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들이 벌써부터 치열한 보상금 유치전에 들어갔다.

금융기관들은 특히 거액의 보상금 유치를 위해 우대금리 적용과 특관상품 판매 등 유치전략을 세워놓은채 타 기관의 동향을 주시하는 등 극심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8일 광주지역 금융기관에 따르면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에 들어설 나주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완료되면서 5월말부터 본격적인 토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감정평가가 끝나야 정확한 보상금 규모가 정해지겠지만 대략 476개 보상대상가구에 6천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은 이 가운데 4천~5천억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2천억원 안팎이 국공채 등 채권으로 보상이 이뤄

내달 보상... 6,400억중 5,000억 현금 풀려 광주·전남 금융권 우대금리 내걸고 유치전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원주민들에게 지급되는 현금 보상금을 주요 타깃으로 예금 유치전에 나서고 있고, 증권사들은 1억원 이상 초과금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받는 부채지주(타 지역 거주자)들을 상대로 채권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은행은 본점 PB(프라이빗 बैं킹)사업부와 나주지점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지에 임시집포 부지를 탐색하는 등 유치전에 가장 적극적이다.

특히 전체 보상금 대상자의 70%에 달하는 나주와 인근 지역(광주 남구

와 광산구) 주민들을 유치 타깃층으로 정하고 이들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나주시와 협약을 맺고 일부 보상금 대상자들에게는 이미 대토자금(보상금으로 새로운 땅을 사는 것)을 대출해주고 있다.

농협은 현지 지역농협이 고객의 보상금 대상자를 조합원으로 새로 편입하는 등 밀착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앙회차원에서는 보상금 대상자를 상대로 한 우대금리의 특관예금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가장 먼저 지난해 8월 태스크포스팀을 꾸렸지만 타 은행보

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특별상품을 출시해 고객 유치를 나선다는 전략만 세워놓고 타 은행의 금리적용을 주시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채권보상이 3~5년 만기의 국공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자사의 증권계좌로 채권을 유치한후 이를 펀드 등 타 상품으로 전환시킨다는 전략 아래 부채지주 접촉에 나서고 있다.

현대증권과 대신증권은 자산관리 영업 직원들이 나주 현지에서 주민 접촉을 시작했으며 삼성증권은 광주지점과 상무지점이 연합해 고객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기관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놓았지만 정보 노출을 꺼려 타 기관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사활을 건 유치전이 본격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일보-여경협 공동 '여성경제인 포럼'... 이견철 광·전발표 선임연구원 특강



한국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회원 100여명과 시민들이 이견철 연구위원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세방화 시대 품질로 승부하라”

〈세계화+개방화〉

“실적보다 서비스 중시 경영 펼쳐야”

여성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처하려면 신기술 개발과 함께 기술생산을 높여 대외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관 체계를 구축해 혁신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김향덕) 공동 주최로 광주 신영파크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여성경제인 포럼에 강사로 나선 이견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나주 인근에 건설될 혁신도시의 경우 에너지·농업 등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광역 산학연관 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이다”며 “이를 고려해 사업다

각화 또는 신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21세기 생활패턴이 물질적 풍요(Riches), 정신적 성숙(Ripeness), 시간적 여유(Rest) 등 '3R'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시급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목을 선택할 때 건강이나 환경이 가장 중요한 자태가 되고, 음식도 패스트푸드(Fast Food)보다 슬로우푸드(Slow Food)나 향토음식을 많이 찾게 될 것”이라며 “슬로우라이프(Slow Life) 바람에 주목, 광주·전남 기업들도 얼마든지 다양한 아이템을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년째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과 관련, 지역 기업들이 관

심을 가져야 부분도 적지 않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 상해권을 주 타깃으로 선정해 금융·유통·문화관광산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광주·목포권의 경우 상해와 강소성 인접지역을 겨냥, 고부가가치 제조업 제품 교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세계화·개방화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되고, 이런 흐름은 향후 세계 경제질서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으려면 가격보다는 품질, 판매실적보다는 애프터서비스를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회원·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 오너 3세대 금호산업 지분 늘려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의 아들 박세창씨와 고 박정구 전 그룹회장의 아들 박철완씨 그리고 박찬구 그룹회장의 아들 박준경씨는 지난 13일 금호산업 보통주 6만8천200주씩을 매입하는 등 오너3세대들이 금호산업 지분 늘리기에 나섰다.

이로써 금호산업의 지분 구조는 금호석화 30.85%, 박삼구 회장 2.27%, 박찬구 회장 2.32%, 박성용 명예회장의 아들 박재영씨 3.59%, 박철완씨 5.71%, 박세창씨 3.44%, 박준경씨 3.39%,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0.65%로 대주주와 계열사가 총 52.22%의 우호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신세계 법인 출범 12년 지역친화 초일류 유통기업 도약 선언

광주신세계가 법인 설립 12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광주신세계(대표 전우만·사진)는 18일 “법인 출범 12년차를 맞아 백화점과 이마트, 패션스트리트 등 분야별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지역 친화형 초일류 유통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4월 광주 기업으로 탄생한 광주신세계는 다른 유통업체들이 지방화·다점포화에 중점 투자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위해

통합운영했던 것과 달리 추가 비용을 들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 지역친화적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현지 법인화와 지역경제 기여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전국 각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신세계의 지역친화적 이미지는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원천으로 작용해 지난해 매출액 1천453억원에 212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그동안 선행·효행 장학금 9억3천400만원,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생활지원금 등 사회봉사 사업 12억 3천100만원, 광주비엔날레 기금 8억5천만원 등 총 47억7천여만원을 지역에 환원했다.

전우만대표는 “지역친화 및 고객 만족 경영을 바탕으로 광주와 함께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한 호남 지역 최고의 복합쇼핑센터로 발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천안-논산 고속국도 통행료 광주·전남북 상의 인하 촉구

광주와 전남·북지역 상공회의소가 천안-논산간 고속국도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 목포, 순천·광양, 여수, 전주, 익산, 군산 등 호남지역 7개 상공회의소는 17일 천안-논산간 민간 고속국도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 이날 각계에 보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친환경 인증 농산물 5년새 13배 늘어

최근 5년 사이에 전국의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량이 1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생산된 친환경인증 농산물은 112만8천93t으로 친환경인증 인증이 시작된 2001년 생산된 8만7천279t에 비해 12.9배로 증가했다.

또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능가는

4천628호에서 17.2배인 7만9천635호로 생산면적도 4천554ha에서 16.4배인 7만4천995ha로 각각 늘어났다.

지난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가운데는 저농약 농산물이 71만2천380t으로 가장 많았고 무농약 농산물이 32만308t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이 9만5천403t 순이었다. 농관원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

비자와 생산자의 관심 증가 및 정부의 친환경 농업 육성책과 농관원에서만 실시하던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2002년부터 민간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도 확대한 것 등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활성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생산된 전체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약 12.2%인 13만7천953t이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농관원이 지정된 전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은 모두 34곳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실직자도 직장건보 자격 유지

복지부 법 개정안 예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실직해도 일정 기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실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올라 부담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2년 이상 해당 직장에 근무한 경우에 한해 최장 6개월까지 직장 가입자 자격을 주되 보수 월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보수로 산정키로 했으며, 사용자 부담분은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1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지금까지는 휴직 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휴직 전월 보수와 휴직기간 중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육아 휴직자는 일률적으로 보험료의 50%가 면제된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이 지원해 오던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기준을 200만원 초과사로 낮추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전남 이용기능장 1호

가발 확장 이전 시술 12년 경력의 최고실력자

심는가발 탄생!!

- 1997년 CAT 불린서 세계선수권대회 대상수상에 빛나는 전국 최고의 실력자 이수재원장이 직접 시술합니다
- 1:1 원장직접 개별상담실 운영
- 타사제품과 비교할수 없는 전국 최저가 시술
- 타사제품 고가보상판매 실시
- 타사제품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은 상담해 드립니다
- 30년 경력의 이용사가 직접착용시술 컷트 관리까지 해드립니다
- 시내·외 출장가능 / 신용카드 환영
- 올렉스타일, 취침, 수영, 사우나, 축구, 헬스, 테니스 어떤 운동에도 장애가 될수 없습니다

최상품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대산 프리모 남녀가발맞춤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2-4622~3, 673-5858
원장 이수재 011-607-5330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무로전화 080-323-5858
E-mail: daesangabal.co.kr

(株) 행복출발은

창사이래 10년동안 오직 재혼만 전문으로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이제는 국내 최대 재혼 회원을 보유하고 최고 재혼교제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 집중조명 되고있는 국내 대표 재혼정보회사입니다.

회원수 1위 한국대표 재혼정보회사

다양한 직업의 노블레스 여성회원 다수보유

초대졸 커리어니저 0명 모집

(株) 행복출발 (062) 527-3388

호남지역총괄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D) 마들닷컴 >90 을 치세요